

나홀만에... 코로나로 또 문 닫은 국회

국민의힘 당직자 코로나 확진 ... 전원 재택 근무체계 국회 일정 중단...재난지원금 실무당정협의, 장소 변경

국회에서 일하는 국민의힘 한 당직자가 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가 다시 '셧다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복귀 사흘 만에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 국회 출입 사진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8일 만의 유사 사례 발생이다. 지난달 30일 방역을 거쳐 다시 국회 문을 연 지는 불과 나흘만이다.

이날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실 비서 A씨로 알려졌다.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는 A씨는 전날 오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았고, 이날 낮 12시 45분께 확진을 통보받았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택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마친 직후 당직자의 확진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간담회 참석했던 당 지도부도 일단 자택에서 대기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확진자가 나온 정책위의장실 직원들은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이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팔꿈치 치기' 인사를 한 점을 고려해 귀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집 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 해제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난 1일 상견례 당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팔꿈치 치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자택으로 향했다"며 "일단 이 정책위의장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31일까지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한 바 있다. 이 대표와 이 의장의 면담 자리에 배석했던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비서실장 역시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관 1·2층과 소통관 1층 등 확진자 동선이 확인된 구역을 폐쇄하고, 본관 내에서 열리는 회의 등 행사를 전면 금지한 후 방역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주 들어 전날까지 매일 국회로 출근했던 확진자는 본관 사무실에 주로 머물렀으며, 지난 1일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에도 들

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시설이 일부 폐쇄되면서 여가위 전체회의, 예결위 결산소위 등 상임위 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민주당 정국회 대비 상임위별 분임토의, 국민의힘 정초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등 여야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애초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장소 변경해 진행하고, 이낙연 대표가 참석 대상인 고위당정은 취소됐다. 이종배 의장이나 주변 당직자들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여야 지도부도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연쇄 파장이 예상된다.

확진자의 1차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하루 뒤인 4일 나올 예정인 만큼 일단 이번 주 국회 일정은 전면 차질을 빚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 간호사 위로 왜 비난하나”

민주 의원들 적극 옹호...“편가르기 말도 안돼”

의료계와 야권이 비난을 퍼붓는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위로' 메시지 논란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간호사의 노고를 위로한 문 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뭘 모르거든 가만히 계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방역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고 격려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트집을 위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기 위해 시비를 거는 생각이 빠져떨어진 분들은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감사 메시지에 대해 편 가르기라고 떠들썩하다"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며 놀랐다"고 적었다.

이어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라며 "보고도 못 본 척, 누가 다쳐도 그냥 지나쳐야 하나.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까"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언급된 가수 아이유 팬들이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이런 저열한 술수 말고 진정으로 국민통합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의원은 "급기야 아제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많은 국민을 경악시켰다"며 "갈라치기라는 낯선 단어가 이 정부 들어 가장 흔한 유행어가 됐다"고 개탄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3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성장하면서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공개 확대, 하급심 충실화 등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사법행정 관련 권한 분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관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혀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수호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살 與 최고위원 박성민 “당비 감면 줌”

학생 신분 매월 150만원 부담...이낙연 대표에 요청

"학생이 매달 지명직 최고위원 직책 당비 150만원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996년생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발탁되면서 역대 최연소 최고위원 기록을 세운 박성민 내정자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으로 공식 발표된 후 이날 연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데 대한 감사 인사 겸 직책 당비 감면을 부탁하기 위해 서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책에 따라 직책 당비를 내야 한다.

청년 부대변인 신분으로 매달 5만원을 직책 당비로 냈던 박 내정자는 최고위원 신분이 되면 매달 150만원을 내야

한다. 대학생 신분인 박 내정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액수다. 다만 당규는 당원이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 의결로 직책 당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박 내정자의 이 같은 당찬 모습에 유쾌해하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최고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3일 당 사무처는 박 내정자의 직책 당비 감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처음으로 감면해주는 사례가 될 것 같다"며 "청년 정치 이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의료계 파업 해결' 특위 구성 합의

공공의료 확충·지역 의료 격차 해법 논의

여야는 의료계의 파업사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논의구조가 대안

히 중요하다"며 "어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에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이름은 조금 변경될 수 있지만 지금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포함한 논의를 위해서 국회 내에 특위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기구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의원만 참여할지, 의사도 포함되는 여야정협의체일지에 대해 의료계의 의사도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한정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최대집 대한의사회회장 등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의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호하다"면서 "범투위(범의료계4대약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되면 현재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내 특위 구성을 통해서 전달 체계 개편, 수련 환경 개편, 지역 가산수가의 신설 등 의료계 개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BTS, 군대 연기 가능해지나

민주 전용기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연기의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면 연기 취

소도 가능하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쫓겨갈 수 있는 직종과 같은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도 임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의는 문체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다"며 "e스포츠 선수들도 포함하는 것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